

탁아의 질과 어머니 자아존중감에 따른 어머니 격리불안*

Maternal Separation Anxiety on Quality of Day Care and Mother's Self-Esteem

경희대학교 아동·주거학과
대학원 송진숙
경희대학교 아동·주거학과
교수 조복희

Dept. of Child, Family, and Housing studies, KyungHee Univ.
Graduate School: Jin Suk Song
Dept. of Child, Family, and Housing studies, KyungHee Univ.
Prof.: Bok Hee Cho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해석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aternal separation anxiety depending on the quality of day care and mother's self-esteem. Subjects consisted of 187 mothers who had children from 6 to 36 months of age. The instruments used were the questionnaires which consisted of the Maternal Separation Anxiety Scale(Cho and Park, 1992), Self-Esteem Inventory(Coopersmith, 1967), and the checklist which consisted of the Early Childhood Environment Rating Scale(Harms & Clifford, 1980) and the Family Day Care Rating Scale(Harms & Clifford, 1989). The datas were analyzed by the statistical method based on frequency, percentile, t-test, and one-way ANOVA.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maternal separation anxiety by mothers' age and not by their educational levels. Secon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ternal separation anxiety by

* 본 연구는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부분적으로 발췌, 요약한 것임.

children's age, sex, and birth order. Thir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aternal separation anxiety by quality of day 2care, size of group, and adult-child ratio. Forth,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ternal separation anxiety by mother's self-esteem.

1. 서론

1. 연구의 목적

최근 취업여성의 증가에 따라 어머니와 아동의 격리는 보편적인 일이 되었고, 짧은 시간이지만 일반 가정에서도 격리는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그러므로 어린 아동을 둔 어머니들이 영유아 탁아소 같은 아동보호시설이나 어머니를 대신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성애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 즉 아이는 어머니가 양육해야 한다는 믿음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지배적인 실정이다. 이에 부모-자녀관계를 상호작용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볼 때 취업주부는 정서적인 불안과 죄책감으로 자신이 없는 동안 자녀가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가정과 직장이라는 이중역할에 대한 갈등이 두드러짐에 따라 어머니의 격리불안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여성은 어머니됨(motherhood)과 취업을 병행하려 하지만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들 두 역할은 상호 포괄적이고 두가지 역할을 통합하기 위한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Gerson(1985)은 어머니들이 두가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한가지 전략은 어머니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믿음을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어머니가 그들 유아의 단 한 명의 양육자이고 어머니-유아 격리는 상대적으로 빈번하지 않는 일이라는 전통적인 믿음을 재공식화 해야한다.

그 동안 어머니로부터의 격리에 대한 영아의 불안에 관해서는 꾸준히 연구된 반면 어머니 쪽의 불안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1970년 초기에 연구자들이 유아와 어린 아동에 있어 격리불안과 격리저항행동(separation protest)의 발생에 초점

을 두고 유아와 어린 아동이 격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연구했다(Jieun Kim, 1991). 우리 나라의 경우도 어머니-영아의 애착행동 및 격리에 대한 연구(정영숙, 1976; 이주혜, 1980; 박은숙, 1981; 고경애, 1983)들이 다소 있으나 이들 연구들은 모두 영아가 갖는 불안과 발달 특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많은 발달심리학자들이 어머니-영아 격리의 과정을 인간발달의 이해로 간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영아 쪽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던게 사실이다. 연구자들은 어머니의 행동, 태도, 감정 등의 변인이 중요한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같은 격리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과 불안은 단순히 부수적인 사건으로 인식하여 제대로 측정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박성옥, 1993).

그러나 Hinde와 McGinnis(1977)연구는 벵골산 어미원숭이와 새끼원숭이가 격리시 재결합 후에도 둘다 이전에 가졌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던 결과를 보임으로 격리에 대한 반응이 어머니나 아동의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것을 시사해 주었다. 이 연구는 영아의 격리에만 초점을 맞추어왔던 발달심리학자들의 연구방향을 어머니 쪽의 격리불안에 관한 관심으로까지 전환을 가져왔다. 격리불안의 양방적 측면을 잘 입증 해 주는 또 다른 연구는 McBride와 Belsky(1988)의 연구관찰에 잘 나타나 있다. McBride와 Belsky(1988)의 관찰연구는 격리경험으로 인해 어머니가 나타내는 불안의 높고 낮은 수준은 정서적 장애가 될 수 있고 적절한 어머니 됨을 간섭하며, 이런 어머니의 행동이 아동의 격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격리에 대한 이론과 실증적 연구를 기초로 탁아의 질 및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격리불안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 어머니가 나타내는 격리불안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연령, 성별, 출생순위에 따라 어머니가 나타내는 격리불안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탁아의 질에 따라 어머니가 나타내는 격리불안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 따라 어머니가 나타내는 격리불안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어머니 격리불안의 정의

어머니의 격리불안은 어머니와 그녀의 아이가 격리됨으로서 갖는 어머니의 불안을 반영하는 불유쾌한 감정상태로 정의한다. 어머니의 표현은 아이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한 슬픔(sadness), 근심(worry), 불편함(uneasiness), 죄책감(guilt)등의 감정을 내포하며 이런 정의는 격리 사건과 관련되어진 불안의 일시적 상태를 지시한다(Hock, Gnezda, & McBride, 1984 재인용).

어머니-유아격리과정에 있어 어머니역할의 초기 언급은 Benedek(Hock, McBride, & Gnezda, 1989 재인용)과 Levy(Hock et al., 1989 재인용)의 연구에서 임상적으로 기초된 정신분석학적 본능으로 추측한다. 즉 Levy는 어머니와 아이와의 초기 관계 경험에 따라 어머니가 그들의 아이를 가까이 붙잡아 두려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한다. 더욱 최근에 Mahler와 Pine 그리고 Bergman(1975)연구에서 아동에 초점을 둔 연구이긴 하지만 어머니 스스로 아이에게 밀착하거나 다정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격리되어 있을 때 어머니의 사기가 저하되는 점으로 보아 격리시 어머니 기능의 중요성 또한 부각시켰다.

John Bowlby(1969)의 애착의 동물행동학적 이론은 유아와 어머니 격리불안의 실재를 이해하는데 기초를 제공한다. Bowlby에 따르면 어머니-영아 애착관계는 상호행동으로 아이는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를 통해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애착이 필연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어머니들은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성본능 성향으로 보호, 안정, 만족을 아이에게제공하기 위한 어머니 능력이 방해받아 아이로부터 격리될 때 불안을 초래한다고 한다(McBride, Belsky, 1988 재인용).

Spielberger(1972)는 이를 불안의 특성-상태이론(Trait-State Theory of Anxiety)으로 발전시켜, 불안을 '긴장감과 염려 그리고 증대된 자율신경계의 활동으로 특징 지워지는 정서상태'라고 정의하면서, 불안을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으로 구분하고 있다. 상태불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강도가 변화하는 인간 유기체의 정서적 상황 또는 조건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상태 불안은 긴장이나 염려가 의식적으로 지각된 감정이며 자율신경계의 활동을 일으킨다. 특성 불안은 불안 경향에 있어 비교적 변화하지 않는 개인차를 지닌 동기나 획득된 행동 성향으로 설명된다(김은정, 1990 재인용). 아이와의 격리에 대해 어머니가 갖는 안절부절못하는 감정(nervousness), 근심(worry), 죄책감(guilt)등의 격리불안은 Spielberger의 상태불안 유형과 비슷하다.

2. 어머니 특성과 아동 특성에 따른 어머니 격리 불안

어머니 특성을 살펴본 연구에서, 출산직후 산부인과 병실에서 그리고 그후 1년 뒤에 중류계층 35명의 취업모와 35명의 비취업모를 대상으로 격리불안을 측정한 Bunge(1983)연구결과에 의하면 낮은 교육수준과 적은 연령의 어머니들이 두번다 높은 수준의 격리불안을 보였고, McBride와 Belsky(1988)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과 관련된 격리관심에서 교육수준이 낮은 어머니일수록 현저한 격리불안을 나타내나 연령에 따라서는 격리불안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한다. 그러나 Hock과 Gnezda 그리고 McBride

(1984)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아동 양육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관련된 격리불안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내의 박성옥(199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어머니의 연령이 적은 경우(20대)와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고졸이하)에 유의하게 높은 격리불안을 나타냈다. 이에 연구자는 연령이 적은 어머니의 경우에는 양육경험의 부족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격리불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높은 격리불안을 나타낸다고 해석하고 있다.

아동의 특성을 본 연구에서, Pitzer(1984)는 첫 아기가 7개월째 어머니의 격리불안을 측정한 후 둘째 아이를 출산한 후 같은 시기에 어머니의 격리불안을 다시 측정한 결과 일반적인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아동의 격리반응 및 영향에 대한 어머니 인식에서 첫째 아이에 비해 둘째 아이의 경우 유의하게 낮은 격리불안 수준을 나타냈다. 이런 결과에 대해 Pitzer는 어머니들이 첫아이에 대한 양육의 경험을 통해 격리가 아이들에게 다소 독립심이나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므로 격리불안의 수준이 낮아지게 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McBride와 Belsky(1988)의 연구에서 여아의 어머니 격리불안 점수는 3-9개월에 이르러 감소되는 반면 남아의 어머니 점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성별에 의해서 어머니 격리불안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Hock과 Demeis 그리고 McBride(1988)의 연구에서 아동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어머니 격리불안의 수준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어머니들은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어머니와의 격리를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것으로 믿는다고 추측할 수 있다.

박성옥(199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어머니 격리불안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아동의 성별에 따른 결과에서는 연령과 출생순위 변인을 통제하여 살펴본 결과 남아에 비해 여아의 경우가 유의하게 높은 격리불안을 보였다. 출생순위에 따른 결과는 둘째 이하의 자녀보다 맏이의 경우 어머니 격리불안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3. 탁아의 질과 어머니 격리불안

53명의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아동 격리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Poloma(1972)의 연구결과,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아이의 안전한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만약 아이에게 해롭다고 여겨지면 일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 결과를 통해서 만약 대안적 양육상황이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라면 자녀에 대한 염려, 근심, 죄책감 등으로 나타나는 어머니의 격리불안이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발달적 종일제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본 이영과 이해경(1989)은 자녀를 종일제 프로그램에 위탁한 어머니들이 취업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데 대한 불안감과 죄책감을 덜게 되어, 부모로서의 자신감이 커지고 가정생활에 안정감을 얻는다는 연구결과로 미루어 좋은 질의 탁아 프로그램에 자녀를 맡겼을 경우 더 적은 격리불안을 느낀다고 추정할 수 있다.

McBride(1990)가 49명의 중상류층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탁아의 선택 기준 및 질적 특성과 어머니 격리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에서 어머니 격리불안이 높은 사람은 탁아소의 선택 기준으로 가장 먼저 탁아 환경을 고려하고 두번째로 교사의 자질을 고려한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탁아의 질적 특성 고려에서는 성인 대 아동의 비율이 낮을수록 격리불안의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Harms & Clifford(1980)의 유아 환경척도(The Early Childhood Environmental Rating Scale)로 평가한 연구결과 높은 질의 환경으로 평가된 탁아의 경우일수록 대리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더 민감하고 덜 엄격하게 하므로 격리불안이 낮아진다고 보고한다.

4.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 격리불안

어머니의 인성구조 그리고 역할과 관련된 신념과 문화적 배경은 격리에 대해 어머니가 느끼는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어머니 격리표현에 대한 다

양한 표현은 무엇보다 어머니 역할과 관련된 문화적 기대에 대한 여성의 해석으로 도출될 것이다(조복희, 박성옥, 1992).

많은 연구에서는 비록 자기보고식으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다고 할지라도 연구결과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어머니들이 덜 불안해 한다고 했다(McBride et al.1988; Belsky & Isabella, 1988; Belsky, Rovine, & Fish, 1987). 자아존중감을 정의하는 적절한 해석이 분명하지 않지만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어머니들이 그들의 아동과 격리되는 것에 대하여 큰 관심을 표현하고 부모애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다는 것이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어머니들은 격리에 관하여 지지하는 분위기로 그들의 아이와의 격리에 대해 과도한 관심을 부정하는 것이다.

McBride와 Belsky(1988)는 인성의 한 부분으로 간주된 대인간 애정이 높게 평가된 어머니가 높은 격리불안을 나타 낸다고한다. 그것은 아마도 어머니들이 그들의 아이 감정에 더 민감하고 감정적이기 때문일 것으로 예측한다.

이 결과로 미루어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성들은 심리적 안정감이 높고,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에 있어 개방적이므로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어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낮아 자녀와의 격리에 대해서도 안정적이고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어머니들은 심리적 안정감이 낮고,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 대해 집착함으로써 아이의 양육자는 단지 어머니 한사람 뿐이라는 고정관념으로 말미암아 격리시 강한 죄책감과 불안을 느낄 것으로 간주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에 거주하는 생후 6-36개월 된 영유아의 어머니 340명을 대상으로 이들은 모두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아이를 만나절이나 종일반에 맡기는 어머니들이다. 이들의 표집방법은 대전시 전체 5구의 행정구에 각각 허가를 내고 있는 놀이방

(가정탁아), 어린이집, 직장탁아소를 방문하여 선생님들에게 협조를 구한 뒤 어머니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했다. 표집대상이 된 탁아소 총 40곳중 질문지 회수율이 낮은 곳을 제외한 나머지 36곳을 분석자료로 사용하였고 340부중 총 회수 부수는 211부인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187부만이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 격리불안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어머니 격리불안을 측정하는 도구는 조복희와 박성옥(1992)에 의해 개발되었고 격리불안 척도는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구성요인은 '일반적인 어머니 격리불안(13문항)', '아동의 격리반응 및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10문항)',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가치(6문항)', '신체적 접촉 및 밀접함에 대한 열망(5문항)', 그리고 '직업과 관련된 격리관심 및 태도(5문항)'로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지는 Likert 식 5점 척도형의 측정도구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까지 분포한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격리불안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 격리불안에 관한 총 39문항중 본 연구에서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제외한 총37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를 구체적인 계수로 반영해주는 cronbach의 α 계수가 .73으로 높게 나타났고, 요인별로는 .62-.81범위로서 대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Coopersmith(1967)가 개발한 자아존중감척도(Self-Esteem Inventory: SEI)를 사용하였다. 원래 척도는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5문항 단축형을 사용한 김경연(1987)은 문항중 일부를 성인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신뢰도 계수가 cronbach alpha= .80으로 한국에서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신뢰성 있는 척도임이 밝혀졌다(이은주, 1993

재인용).

어머니 자아존중감에 대한 측정도구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문항에 대한 응답은 2점 척도로 '그렇다(1점)', '아니다(2점)'을 주었다. 어머니 자아존중감의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3) 탁아의 질

본 연구는 탁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Harms & Clifford(1980)의 "Early Childhood Environment Rating Scale"과 Harms & Clifford(1989)의 "Family Day Care Rating Scale"을 혼합·수정하여 3점 척도로 본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총 24문항의 3점 평정척도의 체크리스트로서 '매우 그렇다(3점)', '중간정도(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 따라 질적 수준을 판단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탁아의 질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본 측정도구의 관찰자간 신뢰도는 Irwin-Bushnell의 공식에 의해 산출한 결과 신뢰도 점수가 .88로 바람직한 신뢰도 수준으로 보여진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 조사를 하기전에 측정도구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예비조사를 한후 일부 질문지의 내용을 수정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2) 검사자 훈련

탁아의 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하기전 검사자 5명을 훈련하였다. 검사자들에게 질문지의 각 문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실제 훈련은 미리 선정된 2곳 탁아소를 방문하여 2명씩 짝을 이루어 각각 질문지를 체크하도록 하였다. 불일치하는 부분에 있어 5명의 검사자들은 상호 조종하여 관찰자 간의 신뢰도를 일치하도록 조정하였다. 체크에 참여한 총 검사자는 본 연구자를 포함 6명으로 2명이 짝을 이루어 36곳의 탁아소를 방문 체크하였다.

(3) 본조사

본 조사는 대전시 5개의 행정구청에 협조를 의뢰하여 현재 허가가 나 있는 어린이집과 놀이방의 전화번호를 받아 전화로 협조를 구한 뒤에 방문 조사하였다.

IV. 결과해석 및 논의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표 1, 표 2 참조>

<표 1> 연구대상 어머니와 영·유아의 일반적 특성

(N=187)

		변 인 구 분	N	%
어머니의 특성	가족형태	대가족	32	11.2
		핵가족	155	88.8
	직업	비취업	71	38.0
		취업	116	62.0
	연령	20대	61	32.8
		30대	126	67.2
교육수준	고졸이하	87	46.5	
	대졸이상	100	53.5	
연령	24개월이하	42	22.5	
	25-36개월	145	77.5	
영유아의 특성	성별	남아	103	55.1
		여아	84	44.9
출생순위	첫째	127	67.9	
	둘째이하	60	32.1	

2. 탁아소의 특성<표 3 참조>

3. 어머니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격리불안

어머니의 사회 통계학적 변수중 연령의 경우, 20대 어머니 집단의 격리불안 평균 점수는 111.50점(SD=9.58)이고, 30대 어머니 집단의 평균 점수는 106.56점(SD=13.26)으로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20대와 30대에 있어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연령이 적을수록 격리불안이 더 커지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연령이 적은 어머니가 높은 수준의

〈표 2〉 연구대상 탁아교사의 일반적 성격

		(N=36)	
변 인 구 분	N	%	
연 령	20대	25	69.4
	30대	11	30.9
탁아교사의 특성	교육수준		
	고졸이하	4	11.1
	전문대졸	24	66.6
	대졸이상	8	22.3
교사경력	1년미만	6	16.6
	1년-2년	15	41.7
	3년 이상	15	41.7
근무총시간	10시간이하	25	69.4
	11시간이상	11	30.6

〈표 3〉 탁아소의 특성

		(N=36)		
변 인 구 분	N	%		
탁아소의 특성	부모교육			
	정규부모회	3	8.3	
	면담	13	36.1	
	가정통신문발송	20	55.6	
교사대	1:8이하	16	44.5	
	아동비율	1:9이상	20	55.5
	반급모			
	1반이하	9	25.0	
	2-3반	15	41.7	
	4반이상	14	33.3	
아동수	10명이하	5	13.9	
	20명이하	10	27.7	
	21명이상	21	58.4	

〈표 4〉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격리불안

		(N=161)			
변 인 구 분	N	Mean	SD	t값	
연 령	20대	56	111.50	9.58	2.71***
	30대	105	106.56	13.26	
교육수준	고졸이하	71	108.69	11.34	0.38
	대졸이상	90	107.95	13.07	

*** p < .001

격리불안을 보인다는 연구결과(Bunge 1983)와 20대 어머니가 30대 어머니보다 높은 격리불안 수준을 나타낸다는 국내 연구보고(박성옥 1993)와 그 결과가

일치한다. 그러나 McBride와 Belsky(1988)의 어머니 연령에 따른 격리불안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졸이하와 대졸이상의 어머니들의 격리불안에 대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 검증은 한 결과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Hock과 Gnezda 그리고 McBride(198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교육수준이 낮은 고졸이하의 집단이 격리불안을 높게 나타낸다는 박성옥의 연구결과(1993)와는 불일치 한다.

어머니 특성에 따른 격리불안에서 본 연구에서는 유일하게 어머니의 연령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의 연령이 적을수록 격리불안이 높았다. 이는 격리불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어머니의 능력과 양육 경험의 부족으로 그 원인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경제적 변인과 어머니의 격리불안에 대한 연구가 일관성 없는 결과를 보이는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변수 급간과 다른 변인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그 차이가 설명되어져야 할 것이다.

4. 아동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격리불안

〈표 5〉 아동의 연령, 성별, 출생순위에 따른 어머니 격리불안

		(N=161)				
변 인 내 용	N	Mean	SD	t값		
연 령	24개월이하	39	110.23	10.61	1.25	
	25개월이상	122	107.65	12.77		
성 별	남아	90	108.80	11.76	.39	
	여아	71	107.61	13.02		
출생순위	첫째	107.88	107.88	12.88	.65	
	둘째이하	109.18	109.18	10.93		

N.S

본 연구결과는 아동의 연령, 성별, 출생순위에 따른 어머니 격리불안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Hock과 Demeis 그리고 McBride(1988)는 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어머니 격리불안 수준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어머니들이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어머니와의 격리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것으로 믿는다고 추측하고 있다. 또한 McBride와 Belsky(1988)는 남아와 여아의 어머니 격리불안 점수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이고, 박성옥(1993)은 연령과 출생순위 변인을 통제 후 살펴본 결과 남아에 비해 여아의 경우 높은 어머니 격리불안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Pitzer(1984)와 박성옥(1993)은 어머니들이 둘째보다 첫아이의 경우 유의하게 높은 격리불안 수준을 나타낸다고 제시하면서 이 결과에 대해 어머니들이 첫아이에 대한 양육의 경험을 통해 격리가 아이들에게 다소 독립심이나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므로 격리불안의 수준이 낮아지게 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아동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변수와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것은 본 연구의 대상이 취업모에 편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어머니와 아동의 격리상황이 선택적인 상황이 아닌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상황이므로 어머니들이 격리를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5. 탁아의 질에 따른 격리불안

본 연구에서는 탁아의 질 점수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점수 합산을 하여 상위 27% 수준을 상이라 명하고, 하위 27% 수준을 하로 명하여 두집단을 비교한 탁아의 전반적인 질에 따른 어머니 격리불안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탁아의 질에 대한 부수적인 문제로 아동 대 교사 비율, 학급수, 그리고 집단 크기에 대한 어머니 격리불안에 대하여서도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McBride(1990)는 탁아의 선택기준 및 질적 특성과 어머니 격리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격리불안이 높은 사람이 가장 먼저 탁아소의 선택기준으로 탁아 환경을 고려하고 두 번째로 교사의 자질을 고

〈표 6〉 탁아의 질에 따른 어머니 격리불안

변인 구분	N	Mean	SD	t or F값
탁아의 질	상	107.40	14.61	- .23
	하	108.06	11.65	
아동대	1:5이하	108.51	9.29	- .54
교사의 비율	1:11이상	109.72	12.91	
집단 학급수의	1반이하	108.00	14.34	- .01
	2-3반	108.29	12.39	
크기	4반이상	108.38	11.49	- .46
	20명이하	107.89	10.52	
아동수	21명이상	108.68	12.85	

N.S

려한다고 나타났다. 이 결과는 Poloma(1972)의 탁아의 대안적 양육상황이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것일 때 죄책감이나 걱정이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Harms와 Clifford(1980)의 '유아 환경 척도'로 평가한 연구 결과 높은 질의 환경으로 평가된 탁아의 경우일수록 대리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이 더 민감하고 덜 엄격하므로 격리불안이 낮아진다는 보고도 있다.

본 연구자의 개념정의로써 탁아소가 갖추어야 할 세부사항에 대한 질적 기준의 차이와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좋은 질의 탁아에 대한 질적 기준의 차이 때문에 그리고 본 연구의 대상이 취업모에 편중되어 있는 점을 볼 때 대부분의 취업모들이 아동과의 격리상황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직장에 있는 동안 만나절이나 종일제 탁아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탁아의 질을 고려할만한 여건이 못되는 것 또한 이 연구의 제한점이므로 연구결과와 불일치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탁아환경은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존의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취업모의 장·단시간 격리와 또한 일반 탁아기관과 가정탁아등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을 한 점이 설명되어져야 할 것이다.

6.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 따른 격리불안

〈표 7〉 자아존중감에 따른 격리불안

(N=92)				
자아존중감	N	Mean	SD	t값
상	44	105.45	14.19	-1.75*
하	48	110.04	10.77	

* p < .05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점수를 합하여 상위 27% 수준을 상이라 명하고, 하위 27% 수준을 하라고 명하여 자아존중감에 따른 어머니 격리불안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어머니 집단의 격리불안 평균 점수는 105.45점(SD=14.19)이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의 격리불안 평균 점수는 110.04점(SD=10.77)으로써 두 집단간의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t=-1.75)를 나타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낮은 격리불안 수준을 나타냈다.

Hater(1983)와 McBride와 Belsky(1988)는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어머니 일수록 격리불안이 크다고 보고했다. 낮은 자아존중감을 정의하는 적절한 해석이 분명하지 않지만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어머니들이 그들의 아동과 격리되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표현하고 부모애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다고 해석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부모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능률적이라는 심영현(1983)의 연구결과로 보아 자녀와의 격리시에도 덜 불안해하고 편안한 태도로 자녀와의 격리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본 가설을 입증했다. 이들 결과로 미루어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성은 심리적 안정감이 높고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에 있어 개방적이므로 불안이 낮아 자녀와의 격리에 대해서는 안정적이고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어머니들은 아이의 양육자는 단지 어머니 한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으로 말미암아 격리시 강한 죄책감과 불안을 느낄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가치관에 따라서 혹은 어머니의 인성에 따라서 격리불안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종래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므로 어머니가 느끼는 격리불안은 무엇보다도 인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격리불안은 무엇보다도 인성에 의해서 영향 받을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탁아의 질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 따른 어머니 격리불안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사회통계학적 변수중 연령의 경우 20대 어머니 집단과 30대 어머니 집단의 어머니 격리불안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대 어머니 집단이 30대 어머니 집단보다 어머니 격리불안이 크게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특성에 따른 변수들로 아동의 연령, 아동의 성별,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어머니의 격리불안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탁아의 전반적인 질에 따른 어머니 격리불안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부수적인 항목으로 탁아소의 아동대 교사의 비율, 집단의 크기, 그리고 탁아소의 학급수에 따른 격리불안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더 나은 질적 연구를 위해 현재 이용하고 있는 탁아소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 변인과 연관시켜 탁아의 유형과 환경을 관련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넷째, 어머니 자아존중감에 따른 어머니 격리불안의 차이 검증을 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어머니 집단과 자아존중감이 낮은 어머니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가치관에 따라서 혹은 어머니의 인성에 따라서 격리불안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종래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므로 어머니가 느끼는 격리불안은 무엇보다도 인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놀이방과 어린이집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하였으므로 전체적인 것으로 결과를 일반화 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탁아의 질 체크리스트는

국내 연구에서 타당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 연구가 외국의 기존에 있는 체크리스트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화의 문제가 제기된다. 타아의 질을 평정하기 위한 관찰로 관찰자 훈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찰자간의 주관의 개입되었을 우려가 있고 관찰자간의 타아의 질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연구자에 의한 관찰뿐만 아니라 실험과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설정해 연구방법을 통한 객관적인 측정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집단이 다소 편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현재 놀이방과 어린이집에서 어린 영유아를 받을 경우 적자운영이 된다는 이유로 어린 영유아 연령을 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정부가 타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타아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격리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단순한 일반적 배경변수의 영향만을 규명하였다. 그러므로 어머니들이 아이를 타아소에 맡기는 동기상황과 취업 유무를 통하여 만나절과 종일반을 구분하여 통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구체적이고 시사적인 내용의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연구가 부족한 어머니 격리불안의 이해를 돕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어머니 자신의 가치관, 인식등의 사고의 변화가 요구되는 사회저변의 인식변화를 돕는데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정부의 타아 정책과 타아 이용자인 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타아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나름대로의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고경애(1983). 모자녀 애착관계가 유아의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 김정연(1987). 부모의 아동평가·자아존중감·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3) 김은정(1990).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이 중심시아와 말초시아에 대한 주의의 작용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4) 박성옥(1993). 3세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격리불안.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5) 박은숙(1981). 어머니의 양육차원이 한국 유아의 낮가림, 격리불안 및 대물애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6) 이영, 이혜경(1989). 발달적 종일제 영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연구. 유아교육연구, 제9집, 한국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회, pp 81-96.
- 7) 이주혜(1980). 유아의 낮가림 및 격리불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와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8) 정영숙(1976). 한국유아의 낮가림과 격리불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9) 조복희, 박성옥(1992). 어머니의 격리불안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13, 16-37.
- 10) Bunge, J.(1983). The nature and measurement of maternal separation anxiety in employed mothers as it relates to socioeconomic statu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OH.
- 11) DeMeis, D. K., Hock, E., & McBride, S. L.(1986). The balance of employment and motherhood: A longitudinal study of mothers' feelings about separation from their first born infants, *Developments Psychology*, 122, 627-632.
- 12) Harms, T., & Clifford, R. M.(1980). *Early childhood environment rating scal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13) Harms, T., & Clifford, R. M.(1989). *Family day care rating scal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14) Hinde, R. A., & McGinnis, L.(1977). Some factors

- influencing the effects of a temporary mother-infant separation: Some experiments with rhesus monkeys. *Psychological Medicine*, 7, 197-212.
- 15) Hock, E., Gnezda, T., & McBride, S.(1984). Mother of infants: Attitudes toward employment and motherhood following birth of first chil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425-431.
- 16) Hock, E., DeMeis, D., & McBride, S.(1988). Maternal Separation Anxiety: Its role in the balance of employment and motherhood in mothers of infant. In A. E. Gottfried & A. W. Gottfried (Eds.),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 Longitudinal Research*. New York: Plenum.
- 17) Hock, E., Gnezda, T., & McBride, S.(1989). Maternal Separation Anxiety: Mother-infant separation from the maternal perspective.
- 18) Jieun k. park(1991). Maternal separation anxiety, availability of an at-home support system, and child gender as predictors of preschool adjustment of korean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 19) Mahler, M. S., Pine, F., & Bergman, A.(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New York: Basic Books.
- 20) McBride, S. L.(1990). Maternal moderators of child care: The role of maternal separation anxiety.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49, 53-70.
- 21) McBride, S. L., & Belsky, J.(1988). Characteristics,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maternal separation anxiety. *Developmental Psychology*, 24, 407-414.